

제 9 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사도 마태오

클·그림 : 송현철 안토니오

오늘은
마태오 복음서의
저자로 알려진
사도 마태오에
대해 알아보려고요.

마태오는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는 과도한 세금 징수를
통해 부정하게 돈을 착복하는 일이 많은 데다 로마제국을 위해 일을
했기 때문에 유다인들 사이에선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름_마태오(Matthew)
출신_갈릴래아
축일_9월21일
수호성인_은행가 · 회계원 ·
세금 징수원 · 금전출납원
상징_도끼창 · 책 · 날개달린 사람

복음서에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세리의 이름이
마태오가 아니라
레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르 2,14; 루카 5,27)

원래 이름은
레위였는데
예수님께서
마태오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주장도 있어요.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상종하기 꺼려하고 죄인 취급하는
세리 마태오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대한 마태오의 처신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마태오는 부르심을
받자 '모든 것을 버려둔 채'(루카 5,28)
예수님을 따라나섰습니다.



마태오가 마련한 식사자리를 보고는 바리새인들이 비난합니다.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비난에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 9,13)

전승에 따르면 사도는 유다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했고,
에티오피아에서 창, 칼 또는 도끼로
죽임을 당해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승!

마태오 복음서 발간 기념회



사도는 히브리어로 복음을 써서 남겨주고는 다른 나라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복음의 저자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면서도 유다교 계통과 유다인들의
관습을 잘 아는 유다계 그리스도인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는 복음서가
쓰여지는 과정에서 크게 기여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마태오복음이라고 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죄인인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버리고 기꺼이 응답하는
마태오의 자세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묵상하게 해줍니다.
스스로 부족함을 깨닫고, 그런 만큼 하느님을
더 절실히 찾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의미지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다면
나의 삶이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